

한중Zine

INChinaBrief

Vol.351 2017.11.20

「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중국식 사회주의 3.0은 가능한가?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의 발전모델 전망

작 성 | 동서대 동아시아학과
이흥규 (serilhg@naver.com)

목 차

1. 중국식 사회주의 3.0은 가능한가?
2. 시진핑 집권 2기의 목표와 이념
3. ‘신시대’ 중국의 발전모델
3. 종합 및 함의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시리즈를 통해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진핑 집권2기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 시진핑 집권 2기는 시진핑의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란 새로운 발전이념에 근거한 2050년까지의 발전 구상을 표명
 -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는 2020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과 2050년 ‘대동사회 건설’의 두 개의 백년 달성 즉 중국식 사회주의 3.0 실현까지의 대략적인 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밝힘
-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질문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3.0이 가능한 지 여부
 - 결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진화에 도전하는 경제적 리스크 관리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가져올 정치적 갈등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관건

1. 중국식 사회주의 3.0은 가능한가?

■ ‘중국식 사회주의 3.0’이란?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마오쩌둥의 ‘중국식 사회주의 1.0’과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 2.0’을 거쳐 이제 새로운 단계인 ‘중국식 사회주의 3.0’ 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
- 마오쩌둥 시대라 할 개혁개방 이전 30년(1949-1978)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했으나 계급투쟁을 강조하여 정치혼란과 경제성장의 지체를 야기
 - 덩샤오핑 집권 이후 개혁개방 30년(1978-2008)은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 심화를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이뤘으나 불균형 성장과 복지체제 해체로 인해 불평등과 환경, 노동, 복지, 안전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쇠락과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굴기(崛起)가 이루어졌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이 가능한 ‘중국식 복지국가’ 구축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

- ‘중국식 사회주의 3.0’론은 중국 국내외에서 유사한 주장들과 뒤섞여 계속되어 왔으며 기실 ‘중국모델’론을 강화시키는 주장
- ‘중국식 사회주의 3.0’론은 중국 신좌파의 대표인물인 왕샤오광(王紹光)의 주장으로 왕샤오광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자유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간주
- ‘중국식 사회주의 3.0’론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 당국이 주창해온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변형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생산력 발전 즉 경제발전을 거치면 가난한 사회주의가 아닌 풍요로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
 - 해외에서는 ‘차이나 3.0’이나 ‘문명국가’론 등 ‘중국식 사회주의 3.0’과 궤를 같이 하는 다양한 주장들도 등장
- ‘중국식 사회주의 3.0’론은 중국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르게 서방 시스템을 복사하거나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로 나아가고 있다는 ‘중국모델’론의 한 종류

■ 중국 공산당의 ‘두 개의 백년’ 목표는 사실상 ‘중국식 사회주의 3.0’의 약속

-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 목표는 사실상 ‘중국식 사회주의 3.0’의 건설을 의미
 - 첫 번째 100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즈음한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진국 수준의 중산층 복지사회)를 전면적으로 완성(全面建成小康社會)’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 수준, GDP는 20조 달러 수준에 도달하여 미국을 추월하는 단계
 - 두 번째 100년은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을 즈음한 2050년까지 대동사회(大同社會: 이상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중국

식 사회주의를 상상하는 것

- 결국 ‘두 개의 백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업그레이드된 ‘중국식 사회주의 3.0’ 체제를 구축한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의미

- ‘두 개의 백년’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유헌처럼 제시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전략 목표
 - 중국인들은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약 100년의 치욕(百年恥辱)을 겪었다고 생각해왔음
-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은 계획경제와 대약진(大躍進) 운동 등의 중국식 사회주의 1.0체제를 통해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초영간미(超英趕美)를 주창
-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2.0체제를 구축한 뒤, 1987년 제13차 당대회에서 윈바오(溫飽: 가난의 해결), 샤오캉(小康: 기본적인 복지 구축), 다통(大同: 모두 풍요로운 상태)이라는 ‘3보(步) 발전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목표 달성 시기로 ‘두 개의 백년’을 제시
 - 덩샤오핑은 “국가 정책은 100년 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후 당이 목표를 바꿀 수 없다고 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은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달성해야 할 덩샤오핑의 유헌이 됨

■ 그렇다면 시진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3.0’을 구축할 수 있을까?

- 결국 19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식 사회주의 3.0’ 실현을 위한 대략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한 셈
- 2017년 10월 18일 24일에 개최된 19차 당대회는 개혁개방 40주년(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2019년), 천안문 사건 30주년

(2019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의 해(2020),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등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했던 시점

- 특히 19차 당대회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이라는 첫 번째 백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두 번째 백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직후인 2050년까지의 구체적 달성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했음
- 결국 19차 당대회의 보고문은 2050년 이후 만들어질 '중국식 사회주의 3.0'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전략을 읽을 수 있는 핵심 텍스트

- 그렇다면 '중국식 사회주의 3.0' 실현은 가능할지 19차 당대회에 나타난 중국의 국가전략 내용 분석을 통해 시진핑 집권2기의 발전모델을 전망할 필요가 있음

2. 시진핑 집권 2기의 목표와 이념

■ 시진핑 집권 2기의 발전 체제 목표: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을 넘어선 '사회주의현대화강국'

- 이번 19차 당대회는 2020년과 2050년이라는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 사이의 30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
- 19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백년' 즉 '중국식 사회주의 3.0'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1단계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15년은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 하에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2단계로 2035년부터 2050년까지의 15년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

대화 실현의 기반 위에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아름다운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결국, 중국 공산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3.0’의 본질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임
-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종전까지 ‘대동사회(大同社会)’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2050년 두 번째 백년의 모습이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가 실현된 기반 위에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아름다운 현대화 강국’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이미 2020년에 GDP가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될 중국이 이제 2050년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국가로 올라가겠다는 의미
-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시기에 달성하려는 것이 ‘자본주의현대화강국’이 아니라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3.0’의 완성이므로 해석될 수 있음

■ 시진핑 집권 2기의 발전 체제의 이념: ‘시진핑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 19차 당대회는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좋은(美好)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 발전 간의 모순’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식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처함을 규정
-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계급 모순이라고 보고 계급투쟁을 주창해 문화대혁명도 발발
- 개혁개방 직후인 1981년 덩샤오핑은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초급단계’로 규정하고 ‘물질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생산력 간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규정하여 생산력 발전을 통한 양적 경제성장을 주창
- 1987년 중국 공산당 13차 당대회에서 중국사회를 ‘사회주의초급단계’로 정식 규정한 이래 2012년 18차 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세인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7년에 이르러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세 인식이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그 징표가 ‘신시대(新时代)’란 언술
-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의 ‘신시대’란 2017년 19차 당대회 이래 2050년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의 구현 이전까지를 관건적 시기로 의미부여하기 위한 것
 -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과도기로서 신민주주의기간을 거치고 1953년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선언하여 1956년 말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했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 실현되는 2050년 이후의 ‘대동’단계를 일종의 ‘사회주의고급단계’로 규정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1957년부터 중국은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었으며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고급단계’로 가기 위한 마지막 시기로서 향후 30여년을 ‘신시대’로 규정한 셈
 -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으며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 수준이란 사실도 변함이 없다고 규정
- 결국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초급단계’의 마지막 시기로서 ‘사회주의고급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관건적 시기를 의미 부여한 것
-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많은 성과를 나열하며 사회주의초급단계가 완성되고 있음을 시사

표 1 | 시진핑 집권 1기 업무성과

경제	①주요 국가 중 최상위의 경제성장률 ②세계2위의 국내총생산 ③공급측 개혁 심화로 경제구조 개선 ④디지털경제 등 신흥산업 활성화 ⑤기초인프라 건설의 가속화 ⑥농업 현대화(연 1억2천 근 수준) ⑦도시화를 제고(평균 20%이상) ⑧지역발전(일대일로, 징진지(京津冀)등 메가시티 건설, 장강삼각주 개발) ⑨창업형 국가건설 ⑩텐궁(天宮), 자오룽(蛟龙), 텐엔(天眼), 우공(悟空), 무즈(墨子), 따페이(大飞) 등 과학기술성과 ⑪세계1위의 대외무역 및 투자, 외환보유액 ⑫체제 폐단 타파와 전면적이고 다양한 개혁(개혁성과 1,500개)
정치법제	①법치, 당의 영도, 국민 주권의 유기적 제도화 ②당내 민주와 협상민주의 발전 ③애국통일전선 공고화 ④민족종교사업 추진 ⑤법치환경 조성 ⑥국가 감찰체제 시범 개혁 ⑦행정체제 개혁 ⑧사법체제 개혁 ⑨감찰체제 건설
사상이념	①당의 이념 강화 및 당의 이론 혁신 ②중국특색 사회주의와 중국몽의 제시 ③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중화민족의 우수 전통문화 발전 ④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제고 ⑤문예창작과 문화산업 발전 ⑥국민건강과 스포츠 발전
민생	①국민생활 수준 제고 ②빈곤구제(빈곤구제를 23%에서 4% 이하로 감축) ③취업문제 개선(연 1300만 명 이상의 신규취업자 배출) ④주민소득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 추월 ⑤중산층 소득 증대 ⑥사회보장체제 기본 건설 ⑦저가 주택 건설 ⑧사회 체계 정비 ⑨사회안정 하에 국가안보 강화
생태환경	①생태문명 건설 ②녹색발전 이념 강화 ③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 제도 확립 ④국립공원 시범사업 ⑤에너지 절약 정책과 에너지 소비 감축 ⑥중대한 생태계 보호와 복원 공사 ⑦산림 복원 ⑧기후변화의 국제협력 선도 ⑨글로벌 생태 문명의 건설
국방	①'중국몽'과 '강군몽'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방침 설정 ②국방과 군 현대화 ③전군정치업무회의 개최 ④군사위원회관리 체계화 ⑤군구와 군조직 개편 ⑥실전 대비훈련 강화 ⑦해상주권 강화 ⑧對테러리즘 긴급 구조와 국제평화유지 ⑨아덴만 수호와 인도주의 지원 ⑩최신형 무기장비 개발
일국양제	①일국양제 관철과 중앙의 통제권 공고화 ②對홍콩·마카오 교류협력 촉진 ③하나의 중국 원칙과 '92共識의 고수 ④양안 문화교류협력 강화 ⑤양안 정상회담 추진 ⑥대만독립 억지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외교	①중국특색의 대국외교와 전방위적이고 다층적 외교 추진 ②일대일로 추진 ③AIIIB 설립 ④실크로드 기금 조성 ⑤국제회의(제1회 일대일로 정상 포럼, APEC 회의, G20 회담(항저우), 브릭스 회담(샤먼), CICA 회의) 개최
당건설	①엄격한 당내 규율 확립 ②당 중앙의 권위 재확립과 당 책임 강화 ③당내 교육(군중노선, 三严三实, 两学一做 교육)강화 ④당건설 제도개혁과 당내 법규 개선 ⑤중앙 8항 규정으로 사치와 특권 억제 ⑥부패 척결

출처: 필자가 19차 당대회 보고문을 요약 정리

-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갈 공산당의 지도이념을 시진핑의 이름을 붙여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想)’이라 명명한 것은 이념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이제 2050년 전까지 30여 년 동안 사회주의초급단계의 막바지이자 관건적 시기로 규정된 ‘신시대’를 이끌어갈 공산당의 지도이념이 된 것
- 그런데 그 지도이념의 이름을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명명한 것은 이 사상의 대표권이 시진핑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향후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권위있는 지도이념으로 중국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 다만, 이러한 차원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종합적인 사상체계로 해석되는 ‘모택동사상’과 동일한 반열의 ‘시진핑사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 결국 향후 ‘시진핑사상’의 확립 여부는 이후 중국의 초강대국화 과정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마오쩌둥 수준으로 강화되고 이에 맞는 독자적 이데올로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음

3. ‘신시대’ 중국의 발전모델

■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경제개혁은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발전’, ‘사회주의시장경제 심화’ 등에 집중

- 향후 30여년 즉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개혁은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주력할 것
- 중국은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상향 이동을 통해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명실상부한 세계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 상황

- 따라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통해 ‘공급측 개혁’과 ‘혁신형 국가건설’을 제시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조
- ‘신시대’는 중국 공산당이 ‘선부유(先富有)’에서 벗어나 ‘공동부유(共同富有)’ 실현의 관건 시기인 만큼 ‘균형발전’ 정책에 주력할 것
 - ‘인민의 좋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 발전간의 모순’으로 새로이 규정한 ‘신시대’의 경제정책은 ‘균형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
-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농촌 진흥 전략’과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을 강조

표 2 | ‘농촌 진흥 전략’과 ‘지역 간 협력 발전’ 내용

	내용
농촌 진흥 전략	△도농 간 융합 발전, △농촌의 현대화, △농촌의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할,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성 유지, △농촌의 집단적 재산권 보장, △농민의 재산권의 보호, △집체경제 강화, △식량안보, △현대적인 농업산업/생산/경영 시스템 구축, △농업 지원보호 제도 개선, △다양한 규모경영 발전, △신형 농업경영 주체 육성, △농업 사회화서비스 시스템 건전화, △소농과 현대 농업의 유기적 결합, △농촌과 1/2/3차 산업의 융합발전, △농민의 취업과 창업 지원, △농촌의 기층 기초 업무 강화, △농촌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
지역 간 협력 발전	△낙후지역/소수민족 지역/국경지역/빈곤지역의 개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 지역혁신, △도시간 균형 발전, △농민의 도시 이주 장려, △징진지(京津冀)와 숭안신구(雄安新区)의 발전 촉진과 개발, △장강지역 경제벨트의 생태 보호, △자원형 지역의 경제발전 추진, △국경지역의 발전과 안전 확보, △내륙과 해상의 공동 발전을 통한 해양강국 추진

- ‘신시대’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체제성격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
 - 중국식 사회주의 1.0은 ‘사회주의계획경제’, 중국식 사회주의 2.0은 ‘사회주의시장경제’였으나 양적 성장을 위해 구축했던 조악한 수준
 - 따라서 중국식 사회주의 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수준 높

- 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의 발전이 매우 중요
-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제도개혁과 개방 확대가 중요

표 3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개혁’와 ‘개방 확대 정책’ 내용

		내용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개혁	국유	△재산권 제도 개선과 시장화 개혁 심화, △국유자산 관리 시스템 개선, △국유자본 위탁 경영체제 개혁, △국유자본 구조의 개선, △구조조정 및 전략적 인수합병, △국유자산 가치보전 및 증대, △국유자본의 발전 및 대형화,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개혁 심화,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시장	△세계 일류 기업의 육성,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면 도입, △통일 시장과 공정경쟁 방해 법규와 규정 폐지, △민영기업의 발전 지원, △상사제도 개혁 심화, △행정독점 타파, △시장독점 방지, △요소가격의 시장화개혁, △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 △시장관리 감독 체계의 개선
	행정	△거시조절의 혁신과 개선, △국가 발전 계획의 역할 발휘, △재정/화폐/지역경제의 정책협조 시스템 구축, △소비 메커니즘 개선과 소비의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증대, △투융자체제 개혁 및 투자의 공급측 개혁의 주도적 역할, △현대 재정제도 수립,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력과 재정권한 분리 및 지역균형, △투명하고 과학적인 경성 예산제도, △성과관리 전면실시, △세제 개혁 심화, △지방세 시스템 개선
	금융	△금융체제 개혁, △금융서비스의 실질적 경제능력 증강, △직접 용자 비중 제고, △다양한 수준의 자본시장의 발전, △화폐정책 개선, △통화정책과 거시정책의 두 정책수단의 활용, △이율과 환율의 시장화 개혁, △금융감독관리체계의 개선, △금융 리스크의 마지노선 설정
개방 확대 정책	△일대일로 프로젝트, △외국자본 유치와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의 공동 추진, △외국자본과의 공동경영/ 공동건설/공동향유의 원칙 준수, △혁신능력 강화를 통해 개방협력, △전방위적인 개방, △대외무역 확대 전개, △유망 무역 업종이나 새로운 무역모델을 육성, △무역/투자자유화 간소화 정책 실행,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도입, △시장진입 문턱의 완화,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외자 투자의 합법 권익 보호, △국내 등기 기업의 동등 대우, △서부 개방 확대, △자유무역실험구의 자주권 확대,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대외 투자 방식의 혁신, △국제산업능력 쉐셰계 무역/투자/생산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우위 제고	

■ ‘신시대’에 중국 공산당의 사회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분배 제고

- 중국 공산당의 사회정책은 우선 민생의 보장과 개선에 주력
- 중국 공산당은 교육 발전에 주력하여 국민들에게 교육의 현대화와 공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은 도시와 농촌 통합 의무교육 발전을 추진해 유아교육, 특수 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의 보급에 주력
- 중국은 민생과 직결된 취업구조 개선을 위해 취업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구조적 취업 문제 해결에 주력
 - 중국은 공공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농민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
 - 노동을 통한 정당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고 노동을 통한 수입이 더욱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주력
 - 물론 저소득자의 수입 지원 및 불법 소득을 통한 과소득 사례를 엄격히 단속
 - 정부의 분배조절 능력을 활용해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의 격차 축소에 주력
- 또한 ‘신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사회보장 체계의 구축, 빈곤문제의 해결 등 공평분배에 집중할 것
- 중국 공산당은 국민, 도시와 농촌, 권한과 책임 등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을 약속
 -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와 거주민들의 기초 양로보험 제도를 개선하며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일 체제를 추진하여 전국민적인 보험 가입을 촉진할 것임
 - 또한 도시와 농민의 통합 기초의료보험제도와 주요 질병, 실업, 상

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도시와 농촌의 사회구조 체계를 통일하고 최저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남녀평등의 정책에 따라 여성과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
 -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중국 주민들을 자기 주택 소유자로 변모시킬 것
 - 중국은 빈곤층 구제를 추진하고 통합적인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당 정부의 책임제를 강화할 것
 - 중국은 국민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현대적인 병원관리 제도와 효율적인 의료위생 서비스 체계 구축에 주력 강조

■ 중국 공산당은 ‘신시대’의 경제사회적 개혁을 위해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과 안정 유지를 강조

- 시진핑 집권 2기 체제를 전후하여 눈에 띄게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이 강화되는 조짐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음
- 시진핑은 19차 당대회 개최 1년 전인 2016년 10월 18기6중전회에서 제5세대 지도부의 ‘핵심(核心)’이란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바 있었음
 - 19차 당대회 직전인 2017년 8월 1일 건군절 90주년 행사에서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원수(首長)가 아닌 주석(主席)으로 불린 것은 과거 마오쩌둥에게만 붙여진 호칭
-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이름이 붙여진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삽입되어,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유사한 카리스마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됨
- 최소한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4인,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14명 등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 엘리트 구조에서 親시진핑 계열 인물이 과반수를 차지

- 19대 보고에서 강조된 ‘당의 영도’ 강화와 ‘반부패 활동의 강화’, ‘의법치국’의 강조는 ‘신시대’ 경제사회 개혁을 위한 안정 강화를 위한 시도
- 19대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엄격한 당 내부관리(종엄치당)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당 중앙의 권위가 중요함을 강조
-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대대적인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도화로 굳어져 19대 보고에서 <국가감찰법>의 입법을 예고한 상황
- 특히 19차 당대회 직전 쑨정차이 숙청과 같은 최고위 권력 엘리트의 부패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처벌은 대중적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의법치국’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로 규정하고 ‘중양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의 설립도 공언
- 19대의 ‘의법치국’ 강조는 단순한 법치나 절차적 정당성 획득 때문이 아니라 당 중앙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 19대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2.0 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

- 본래 2012년 등장한 시진핑 체제는 2020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신권위주의 체제로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신권위주의 2.0 시대로 규정된 바 있음
- 덩샤오핑의 신권위주의 1.0 시대가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면,
- 시진핑의 신권위주의 2.0 시대는 신권위주의 수단을 활용하여 개

혁과정의 심화된 모순을 해결하고 이익독점 및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여 보다 진전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것

- 이제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시대는 2020년 첫 번째 백년의 목표를 넘어 2050년 두 번째 백년의 목표 달성 이전까지 계속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음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으로 권력이 집중된 시진핑 집권 2기 체제는 2020년 이후 30년의 로드맵까지 2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명 - 중국 공산당은 또한 이 기간의 주요 모순을 새롭게 규정하여 ‘신시대’로 명명하고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이념으로 시진핑의 이름을 붙여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규정한 상태
- 결국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의 신권위주의 2.0체제는 더욱 공고화되고 시진핑의 1인자 위상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

4. 종합 및 시사점

■ 2020년까지가 아니라 2050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신 권위주의적’ 사회주의현대화가 계속될 것임

- 19차 당대회를 통해 2020년을 넘어 2050년까지 중국의 정치체제는 안정 관리를 통해 현재의 권위주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선부유’ 단계를 넘어 ‘공동부유’를 이루겠다는 의지 - 2050년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체제개혁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경제 체제 개혁에 있지 정치개혁에 있는 것이 아님을 표명
- 향후 30여년의 ‘신시대’ 동안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경제개혁에 주력 하되 그 방점은 ‘혁신형 국가’, ‘균형발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진화’

에 있음

- 결국, 향후 30여년의 ‘신시대’는 ‘선부유’를 넘어 ‘공동부유’라는 덩샤오핑의 유훈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으로의 권력 강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
- 다만 중국 공산당은 19대 보고에서 유독 ‘협상민주’를 강조한 만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의 정치적 제도화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시진핑 집권 2기는 혁신, 균형발전,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 등을 명분으로 첨단산업 발전, 지역개발 전략, 사회복지 체제 구축 등이 계속될 것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핀테크산업 등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하며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은 물론 일대일로 등 중국의 변경 지역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송안신구와 같은 첨단 스마트 도시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
- 양로, 의료, 육아, 교육 등 사회복지 체제의 전면화를 통해 공동부유의 이상을 실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하려고 시도

■ 그러나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것임

-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진전될수록 중국경제의 위험 요소인 금융과 부동산, 부채 등 영역의 불확실성 관리가 어려워질 것
 - 비록 중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이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버블 붕괴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BIS에 따르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67%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 평균 89%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세계 1위 수준
 - 이러한 중국은행 대출의 60~70%는 국유기업에 해당하고 중국의 대부분 은행은 국영은행이므로 국유기업·국유은행의 부채는 국가 책임인데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46%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편 인만큼 현재 금융리스크는 안심할 수준
 - 그러나 2050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면 금융 자유화는 필수인 만큼, 중국이 향후 금융시장을 점차 개방한다면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의미
- 중국 당국은 금리자유화를 선언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등 금융개혁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향후 중국의 리스크 관리가 주목됨
- 2022년 20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공산당 당내 혹은 공산당과 사회 세력 사이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목인했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 당내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는 바, 향후 시진핑의 권력강화가 시진핑 1인 독재로 귀결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 와해에 반발하는 반시진핑 연합세력이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2022년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의 권력 유지 혹은 강화 여부가 초점이 되는 시점으로 격렬한 당내 갈등과 정치 투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공산당이 20세기 방식의 사회적 안정 관리체제로 이미 다원화 되고 개방화된 중국 사회를 2020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참고자료

성균중국연구소(2017),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종합분석”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유럽외교관계협회 엮음, 중앙일보중국연구소 편역(2012), 『CHINA 3.0』 서울: 청림출판.
이홍규(2015). “중국 신권위주의적 현대화 모델과 개혁방향”, 『한중Zine INChina Brief』, Vol.305.
“중국 기업 부채 '세계 1위'… 금융위기 우려”, 조선닷컴, 2017.10.10.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报告”, 新华网, 2017.10.18.
“十九大第五场记者会：满足人民新期待 保障改善民生”, 新华网, 2013.10.22.